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김희숙¹ · 박완주² · 박경란³ · 김미향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 연구소 부교수¹,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 연구소 조교수²,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 연구소 박사과정생³, 대구달서중학교 보건교사⁴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e Probability among Korean Adolescents

Kim, Hee Sook¹ · Park, Wan Ju² · Park, Gyeong Ran³ · Kim, Mi Hyang⁴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³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⁴Health Teacher, Daegu Wolseo Middle School,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suicide probability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75 adolescents from 17 schools with quota sampling by each region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0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e probability (SP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with Scheffe of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6.0 program. **Results:** Suicide probability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for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p < .001$) explained 32% of suicide probability, compared to relationships with peers or teachers, which together was accounted for 46%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par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adolescents suffer from suicidal thinking. Various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re important to reduce suicide in adolescents.

Key Words: Relationship, Suicide, Adolesc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관계주의 문화이며 각 개인은 자기에 대해 독립

된 자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따라 적절한 관계적 자기들로 구성되고 표현되는 관계적 자기개념(Kim, 2002)을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Park & Kim, 2008)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은 한국 관계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발

주요어: 대인관계, 자살, 청소년

Corresponding author: Park, Wan 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 2-ga,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77, Fax: +82-53-431-1020, E-mail: wanjupark@knu.ac.kr

- 본 연구는 2011년도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1.

투고일 2011년 10월 13일 / 수정일 2011년 11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2일

달과정상 자기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로 자기개념 형성 시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피드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의 밀접한 인간관계의 대상은 주로 부모, 교사나 친구들로 이들과의 역기능적 인간관계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ECD 회원국 중 10만 명 당 자살 자수가 1위로 보고되고 있다(OECD Health Data, 2011).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1995년 10.8명, 2000년 13.6명, 2005년 24.7명, 2010년 31.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자살률도 2001년 5.3%였던 것이 2008년 8.0%로 상승하여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1)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위험요인(risk factor)은 크게 개인요인, 가족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하며, 부모와의 갈등, 의미 있는 사람의 상실이나 이별, 친구와 갈등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 인간관계로 인한 요소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Esposito & Clum, 2002; 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Paulson & Everall, 2003). 또한 청소년 자살을 촉발하는 원인 중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의 만족도 저하로 인한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이차적으로 부모, 친구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한국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삶을 이끌어가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전형으로 중요하다. 한국인의 자기 발달과정은 서양과 달리 한국의 청소년은 가족이라는 혈연의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성장하여도 부모와 여전히 심리적, 경제적, 또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존적이다(Park & Kim 2008).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위기에서 청소년을 구해내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갈등과 절망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연구를 한 Kim과 Lee (2009)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적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41, 학교환경적 변인군은 .22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위험변인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44로 높았다. 또한 Kim과 Chun (2000)의 청소년 자살 특성연구에서 자살 촉발원인 사건으로 대인관계 갈등사건이 대인관계 상실사건보다 더 많았으며, Park과 Jung (2010)의 청소년 자살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인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은 학생이 학업성

취도가 더 높으며, 교사와 갈등관계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경향이 높다(Kim, Park, & Kim, 2004). 하루 중 절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관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사회적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 Kim, 2008).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도덕적으로 이탈되거나 폭력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나, 왕따나 따돌림과 같은 친구관계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자살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Kim과 Chun (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 촉발 원인은 친구갈등,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교사와의 갈등 순이었다. 친구 수가 2명 미만일 때 자살 생각이 높았다는 Oh, Park과 Choi (2008)의 연구결과와 또래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의 목표가 되는 경우 자살위험성이 높았다(Baldry & Winkel, 2003)는 선행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요인이 단순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이며(King & Merchant, 2008) 이것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자살위험요인과 인간관계의 기초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총체적 인간관계와 자살위험성과의 관계와 예측요인을 알아내어 청소년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살예방의 새로운 조망에 기여하는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부모, 친구,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잠재적인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부모, 친구, 교사관계의 인간관계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독립변수인 부모, 친구, 교사관계가 종속변수인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중 지역 할당표집을 통해 17개교 중 17개 반을 선정하여 이 중 재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수는 단계별회귀분석인 경우 예측요인 당 표본크기수가 1: 40 (Tabachnick & Fidell, 1989)으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의 수 11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가 440명으로 계산되었고, 설문지 미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10%를 감안하여도 571명은 회귀분석을 지지할 만큼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성별, 종교, 가족구조, 학업성취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출생순위, 학교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 주위의 자살사건 유무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Murray와 Greenberg (2000)의 애착관계 도구와 Nolten(199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Moon(2002)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3개 영역이 있으며, 각 인간관계에서 불만관계 영역을 제외한 긍정적 문항인 우호관계 8개 문항과 사회적 지지관계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자가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인간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Moon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모관계에서 우호관계 .89, 사회적 지지관계 .91, 친구관계에서 우호관계 .89, 사회적 지지관계 .94, 교사관계에서 우호관계 .89, 사회적 지지관계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모관계에서 우호관계 .92, 사회적 지지관계 .94였고, 친구관계에서의 우호관계 .90, 사회적 지지관계 .94, 교사관계에서의 우호관계 .94, 사회적 지지관계 .95, 전체 Cronbach's α 는 부모관계 .92, 친구관계 .96, 교사관계 .97이었다.

3) 자살위험성예측척도

Cull과 Gill (1988)의 자살위험성 예측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SPS)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Go, Kim과 Lee (2000)가 구성타당도와 내적일치도, 공준타당도 분석을 한 후 총 31문항으로 추출한 자살위험성 예측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부분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자가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요인분석결과 자살위험성의 임상적인 해석을 위한 4가지 하위척도를 제공하는데 절망감(hopelessness) 11문항,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5문항,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 evaluation) 10문항, 적대감(hostility) 5문항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게 예측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절망감 .86, 자살생각 .77, 부정적 자기평가 .82, 적대감 .72, 전체 Cronbach's α = .92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였다. 연구의 일반화와 영향요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D시의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책임자가 연구보조원 2명에게 검사자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구에 관해 2시간 훈련을 시켰으며, 설문지는 학교 정규수업 전 20분을 할애 받아 연구자와 보조연구원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명을 듣고 자발적 연구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보조원이 직접 수거하였다. 대상자의 보호와 연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검

토 및 승인(국립B병원 IRB cord number: 1-015)을 받아 연구가 안전하게 수행되었다.

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을 알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분석, 자살위험성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일반적 특성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학생은 전체 51%, 여학생은 49%를 차지했다. 종교는 무교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기독교, 가톨릭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 64.1%, 하 21.9%, 상 14.0% 순이었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7.4%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족, 결손가정 순이었으며, 학업성취도는 중간 30.5%, 중하 27.7%, 중상 25.2%, 하인 경우 9.6%, 상인 경우 7.0%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48.5%, 전문대졸 이상이 43.3%로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55.7%, 전문대졸 이상이 38.7%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직이 37.1%, 사무직이 27.3%였으며, 서비스직, 그 외, 그리고 전문직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 및 기타가 52.2%, 서비스직 18.0%, 사무직 12.4%, 생산직,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둘째인 경우가 42.4%, 첫째는 41.2%였고,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5.0%, 만족 33.6%, 불만족 12.6, 매우 만족 5.8%, 매우 불만족 3.0% 순으로 나타났다. 절친한 친구의 수는 1명에서 2명이 41.4%, 3명에서 4명이 34.7%, 5명 이상 19.3%, 전혀 없다 4.6% 순이었다. 주변에 자살사건이 없었던 경우가 78.5%였으며, 주변에 자살사건이 있었다가 21.5%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571)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291 (51.0)
	Female	280 (49.0)
Religion	Protestant	111 (19.4)
	Buddhist	144 (25.2)
	Catholic	33 (5.8)
	None	277 (48.5)
	Others	6 (1.1)
Economic status	Affluent	80 (14.0)
	Average	366 (64.1)
	Poor	125 (21.9)
Family structure	Nuclear	499 (87.4)
	Extended	49 (8.6)
	Broken home	23 (4.0)
Academic achievement	Very high	40 (7.0)
	High	144 (25.2)
	Middle	174 (30.5)
	Low	158 (27.7)
	Very low	55 (9.6)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277 (48.5)
	College or university	247 (43.3)
	≥ Graduate school	47 (8.2)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318 (55.7)
	College or university	221 (38.7)
	≥ Graduate school	32 (5.6)
Fa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212 (37.1)
	Clerical worker	156 (27.3)
	Professional worker	41 (7.2)
	Service worker	94 (16.5)
	Others	68 (11.9)
Mo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50 (8.8)
	Clerical worker	71 (12.4)
	Professional	49 (8.6)
	Service worker	103 (18.0)
	Homemaker or others	298 (52.2)
Birth order	1st	235 (41.2)
	2nd	242 (42.4)
	3rd	47 (8.2)
	Single	47 (8.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actory	33 (5.8)
	Satisfactory	192 (33.6)
	Middle	257 (45.0)
	Unsatisfactory	72 (12.6)
	Very unsatisfactory	17 (3.0)
Number of close friends	None	26 (4.6)
	1~2	237 (41.4)
	3~4	198 (34.7)
	5≤	110 (19.3)
Suicide accident in neighbor	No	448 (78.5)
	Yes	123 (21.5)

2. 자살위험성,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의 정도

자살위험성에서 절망감이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자존감, 적개심, 자살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 2.3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간관계는 친구관계가 평균 2.8점, 부모관계 평균 2.8점, 그리고 교사관계 평균 2.3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에서는 우호관계가 사회적 지지 관계보다 높았으나, 교사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관계가 우호관계보다 높았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자살위험성은 경제상태가 낮을 때가 보통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18.71, p<.001$), 가족구조가 결손가정일 때($F=5.73, p=.003$)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F=7.79, p<.001$), 학교생활만족이 낮을수록($F=31.35, p<.001$), 친한 친구가 없을수록($F=8.20, p<.001$), 주변의 자살사건이 있는 경우($t=-2.84, p=.005$) 자살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별, 종교, 부모의 학력, 부모직업과 출생순위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4. 자살위험성,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의 관계

자살위험성은 부모관계($r=-.57, p<.001$), 친구관계($r=-.45,$

$p<.001$), 교사관계($r=-.41, p<.001$)와 역상관관계였으며, 부모관계와 친구관계($r=.42, p<.001$), 부모관계와 교사관계($r=.45, p<.001$), 친구관계와 교사관계($r=.34, p<.001$)는 서로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5.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위험성을 종속변수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요인 변수 중에서 가족구조는 핵가족을 기준(0, 0)으로 확대가족(1, 0), 결손가정(0, 1)으로 2개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바꾸어 처리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산점도, 잔차 산점도로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독립성 및 정규성은 모두 확인되었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34~.57로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9~1.39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으로 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부모관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학교생활만족, 친구관계, 결손가정 가족구조, 교사관계 순이었다. 그 중 긍정적인 부모관계, 학교생활만족,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자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N=571)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SD
Suicide probability	Negative self-esteem		1.0	4.9	2.5±0.63
	Hostility		1.0	4.6	2.0±0.65
	Hopelessness		1.7	5.4	3.1±0.62
	Suicidal ideation		1.0	5.0	1.9±0.70
	Total		1.1	4.6	2.3±0.55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hip	1.0	5.0	3.0±0.71
		Social support	1.0	5.0	2.7±0.68
		Total	1.0	5.0	2.8±0.68
	With friends	Friendship	1.0	4.0	2.9±0.58
		Social support	1.0	4.0	2.8±0.58
		Total	1.0	4.0	2.8±0.57
	With teachers	Friendship	1.0	4.0	2.2±0.71
		Social support	1.0	4.0	2.3±0.69
		Total	1.0	4.0	2.3±0.68

Table 3. Suicide Prob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probability		
		M±SD	t or F	p
Gender	Male	2.3±0.54	-1.30	.193
	Female	2.3±0.56		
Religion	Christian	2.4±0.61	2.20	.067
	Buddhist	2.2±0.53		
	Catholic	2.2±0.57		
	None	2.3±0.53		
	Others	2.2±0.60		
Economic status	Affluent ^a	2.1±0.60	18.71	< .001 c > a, b
	Average ^b	2.2±0.50		
	Poor ^c	2.5±0.56		
Family structure	Nuclear ^a	2.3±0.54	5.73	.003 c > a, b
	Extended ^b	2.3±0.54		
	Broken home ^c	2.7±0.69		
Academic achievement	Very high ^a	2.0±0.50	7.79	< .001 d, e > a, b, c
	High ^b	2.2±0.54		
	Middle ^c	2.3±0.52		
	Low ^d	2.4±0.51		
	Very low ^e	2.6±0.66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2.3±0.55	2.25	.107
	College or university	2.2±0.53		
	≥ Graduate school	2.3±0.63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2.3±0.54	0.55	.575
	College or university	2.3±0.56		
	≥ Graduate school	2.3±0.56		
Fa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2.3±0.57	2.21	.066
	Clerical worker	2.2±0.51		
	Professional worker	2.4±0.60		
	Service worker	2.3±0.56		
	Others	2.4±0.46		
Mo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2.3±0.45	1.94	.102
	Clerical worker	2.3±0.62		
	Professional worker	2.2±0.48		
	Service worker	2.4±0.50		
	Homemaker or others	2.2±0.56		
Birth order	First	2.3±0.55	0.65	.582
	Second	2.3±0.57		
	Over third	2.2±0.46		
	Single	2.3±0.50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actory ^a	1.9±0.50	31.35	< .001 c > a, b d, e > a, b, c
	Satisfactory ^b	2.1±0.43		
	Middle ^c	2.4±0.50		
	Unsatisfactory ^d	2.6±0.55		
	Very unsatisfactory ^e	2.9±0.82		
Number of close friends	None ^a	2.7±0.61	8.20	< .001 a > b, c, d b > d
	1~2 ^b	2.3±0.55		
	3~4 ^c	2.3±0.53		
	≥ 5 ^d	2.2±0.53		
Suicide accident in neighbor	No	2.3±0.54	-2.84	.005
	Yes	2.4±0.57		

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변수의 독립변인인 결혼가정 구조인 경우 기준집단인 핵가족에 비해 자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95.85 ($p < .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누적 설명력 R^2 은 46%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중 절망감(3.1)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자존감(2.5)이 다음 순이었다. Beck, Brown, Berchick, Stewart와 Steer (1990)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인 미래에 대해 비관적 기대나 믿음과 부정적 신념으로 나타난 절망감이 실제적 자살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절망감이 자살위험성에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살시도나 자살행동과 관련한 인지적 변인들을 조절한다는 Goldston 등(2001)의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

청소년의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모관계,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의 개별화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제공받았던 정서적 지지는 또래로 향하게 된다(Ayyash-Abdo, 2002). 즉 자신의 고민과 갈등으로부터의 심리적 안정을 친구에게서 얻게 되므로 친구관계가 다른 타인과의 인간관계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에서는 우호적관계가 사회적 지지 관계보다 높았으나, 교사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관계가 우호적관계보다 높았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감성교류나 친밀도보다는 학업이나 진로지도 같은 지지나 조언 등의 지지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관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의 만족도, 친구와의 관계, 결혼가정의 가족구조, 교사관계 순으로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가장 큰 심리적 갈등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이 친구관계로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

Table 4. Correlation among Suicide Prob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N=571)

Variables	Suicide prob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With friends	With teachers
Suicide probability	1.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57**	1.00	
	with friends	-.45**	.42**	1.00
	with teachers	-.41**	.45**	.34**
				1.00

* $p < .05$; ** $p < .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Suicide Probability

(N=571)

Predictors	B	SE	β	t	p	Cumulative Adjusted R^2	F	p
(Constant)	4.34	.10		41.54	< .001		95.85	< .001
Relation with parents	-0.30	.03	-.37	-10.17	< .001	.3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0.16	.02	-.25	- 7.55	< .001	.40		
Relation with friends	-0.19	.03	-.20	- 5.69	< .001	.44		
Family structure dummy d2 [†]	0.82	.18	.14	4.51	< .001	.46		
Relation with teachers	-.0.06	.03	-.08	-2.21	.027	.46		

VIF=1.009~1.392.

[†] Dummy variables (Family structure: extended=d1, broken home=d2).

[†] The base group represented by the overall intercept is nuclear family structure.

[†] Dummy variables are coded as (1, 0) for extended and (0, 1) for broken home.

소년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연구를 한 Kim과 Lee (2009) 연구에서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과 Jung (2010), Kim과 Chun (2000)의 청소년 자살 특성연구에서 자살 촉발원인 사건으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였다. 청소년기 부모자녀의 관계는 아동기보다 덜 의존적이고 부모의 가치나 의견에 대해 덜 복종적이 된다(Kaplan, 2004).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대화와 협상의 관계로 변화되어진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심각한 왜곡관계를 보이는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을 당한 청소년은 그들의 자아존중감, 분노, 외로움, 우울, 자살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나(Beautrais, Joyce, & Mulder, 1997),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Gotlib과 Hammen (1992)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을 가지게 되어 대인관계 갈등에 취약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역기능적 신념을 매개로 우울과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Bostik과 Everall (2007)의 연구결과에서 지지적이고 의사소통이 잘되고 안정적인 부모관계는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나 자살위험성이 적었고, Esposito와 Clum (2002)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이 높거나 고독감, 지지부족은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 자녀관계는 삶을 이끌어가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라는 혈연의 공동운명체 의식의 공유로 부모와의 관계가 절망적인 것은 삶의 근간을 잃는 것처럼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친한 친구가 전혀 없을 때 자살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수가 2명 미만일 때 자살생각이 높았다는 Oh, Park과 Choi (2008)의 연구결과와 또래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의 목표가 되는 경우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Baldry & Winkel, 2003)와 일치하였다. Kim과 Chun (2000)은 청소년 자살 특성 연구에서 자살 촉발원인 사건으로 친구와의 갈등이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렇게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친밀감 속에서 심리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며 감정적 애착관계가 이루어진다(Park & Woo, 2008). 이러한 친밀감을 갖는 체험이 결여된다면 소외되어 고립될 위험이 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심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친밀한 교우관계는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보호요인(Fergusson et al., 2003; Paulson & Everall, 2003)으로, 또래집단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역할과 지위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설명력 있는 인과관계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교사는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일생을 통해서 교사는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Kim et al., 2004).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준거를 제시해 주며, 우호적이고 지지적으로 재능과 관심을 북돋아 주고 진지한 인간모형을 보여준다.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리적 부모(Kim et al., 2004)로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보호와 지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청소년들과 상호신뢰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교생활 적응에 교사의 지지적인 역할이 대부분이나 어떤 사건은 자살의 촉발원인이 되기도 하여 자살위험성에 교사와의 관계가 적게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시도자는 인간관계에서 정서조절과 문제해결능력의 결함(Schotte & Clum, 1987)을 보인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그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위험성을 예방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족과 결손가정에는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결손가정의 가족구조일 때 자살위험성이 핵가족보다 더 높았다. 결손가정은 이혼, 상실로 인한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 형태를 말한다. 조손가정인 경우 청소년이 조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벌어지는 세대 차이와 함께 의사소통의 단절과 지지를 받는 관계보다는 돌보아야 하는 이중적 스트레스 문제와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인 경우 부모지지체계의 상실로 인해 자살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Kim과 Lee (2009) 연구에서 자살관련 변인으로 가족구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았는데 Kim과 Lee (2009) 연구에서 자살관련 변인으로 경제 상태가 가장 상관이 있는 변인이라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 외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낮을 경우 자살위험성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자살의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자살충동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업성취도가, 심리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스트레스가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Chung, Ahn과 Kim (2003)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교생활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위험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측변인인 부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겠다. 또한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능력과 상담 기술을 증진시켜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교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행동을 촉진시키고 자살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취의 만족을 위해 심리적 안정을 지지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모든 측정변수들이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방어 기제와 같은 오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는 자기보고의 한계가 있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자기보고는 자살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실정에 맞는 인간관계 훈련이나 증진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의 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위험성의 간호중재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소외와 위축을 줄이는 인간관계 전략과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함으로써 자살예방의 전략으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간관계 중심의 치료적 접근이 중재기법으로 활용되어야한다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D시의 총 17개 중고등학교의 571명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자살위험성 간의 상관관계와 자살위험성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부모관계가 가장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었으며, 그 뒤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 결혼 가정의 가족구조,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의 예측요인으로 46% 설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

년의 자살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수용적 우호관계와 사회적지지 관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가족단위나 학교중심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지침에 인간관계 증진전략을 이용하여야 하는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REFERENCES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39*, 459-475.
- Baldry, A. D., &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and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 (1997).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ths aged 13 through 24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543-1551.
- Beck, A. T., Brown, G., Berchick, R. J., Stewart, B. L., & Steer, R. A. (1990).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90-195.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5*, 79-96.
- Ch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 107-126.
- Cull, G. J., & Gill, S. W. (1988). *Suicide probability scale (SP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 Logical Services.
- Esposito, C. L., & Clum, G. A.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 137-146.
- Fergusson, D. M., Woodward, I.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 23-39.
- Go, H. J., & Kim, D. J., & Lee, H. P. (2000). A validation study of suicidal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680-690.
- Goldston, D. B., Daniel, S., Rebousin, B., Reboussin, D., Frazier, P., & Harris, A. (2001). Cognitive risk factors and suicide attempts among formerly hospitalized adolescents: A prospective naturalistic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91-99.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s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 Chichester: Wiley.
- Kaplan, P. S. (2004). *Adolesce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651-661.
-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231-242.
- Kim, K. W., & Chun, M. H. (2000). Study on the teenage suici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Child Welfare*, 9, 128-152.
- Kim, Y. H., Park, Y. S., & Kim, U. C. (2004). Environm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Education*, 13, 201-219.
- King, C., & Merchant, C. (2008). Social and interpersonal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 suicidal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 181-196.
- Moon, E. S.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Murray, C., & Greenberg, M. T. (2000). Children'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bonds with school: An investig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 423-445.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USA.
- OECD Health Data. (2011). *Suicides, death per 100,000 population*. Retrieved March 20, 2012, from http://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 Oh, H. A., Park, Y. R., & Choi, M. H. (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 35-43.
- Park, A. C., & Woo, C. Y. (2008).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attachment for their parents and peers depending on gend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2, 69-85.
- Park, H. S., & Jung, S. Y. (2010). Development of multisystem core competency support model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278-287.
- Park, Y. S., & Kim, U. C. (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2, 801-836.
- Paulson, B. L., & Everall, R. D. (2003). Suicidal adolescents: Helpful aspects of psychotherap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 309-321.
- Schotte, D. E., & Clum, G. A. (1987). Problem-solving skills in suicidal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9-54.
- Statistics Korea. (2011). *Statistics of suicide rate in population*. Retrieved August 20, 2011, from http://kosis.kr/themes/themes_04List.jsp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Collins.